

종립학교를 가다

(15)진선여중 · 고등학교

한국 교육의 최고 열풍지대 강남 8학군. 1970대 후반 경기, 숙명 등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학교들이 강남으로 이전해왔고 생활수준과 교육에 대한 열의가 높은 지역적 특성으로 붙여진 이름이다. 진선여중·고는 바로 이 강남 8학군의 한가운데 위치해 있다. 진선여중·고는 1977년 불교의 대중화와 생활화

를 지향하는 대한불교진각종이 지역을 겸비한 선남 선녀를 양성하고 호국정신과 전통문화 사상을 계승, 발전시켜 이타자리의 생활인을 기른다는 목적으로 설립했다. 개교이후 24년 동안 강남지역 명문사학과 과 어깨를 겨루며 우리나라 여성교육의 전당으로 발전해왔다.

서로 칭찬하며 본받는 여성교육 전당

진선여중·고 학생들은 연꽃과 같은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다. 그 은은함은 바로 진선만이 가진 독특한 인성교육에서 비롯됐다. 매주 월요일 H·R시간에 실시하고 있는 명상의 시간. 학생들은 방송을 통해 나오는 명상의 말씀을 듣고 명상록을 쓰며 자신을 반성하고 올바른 심성을 키우고 있다. 또 심화시간을 활용한 칭찬노트 릴레이도 학생들의 심성을 맑고 향기롭게 한다. 칭찬노트 릴레이는 각 교실에 칭찬 노트를 비치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급우의 선행을 칭찬하고 칭찬받은 학생은 또 다른 급우를 추천하는 식으로 이어진다. 심화시간을 활용해 칭찬노트를 학생들에게 읽어주어 자리아타의 정신을 심어주고 있다.



◇진각종립 진선여중·고는 자리아타의 정신을 바탕으로 인성교육, 특기적성교육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으로 '신 지식인'을 양성하고 있다.

체험을 통한 인성교육도 진선만의 자랑이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진선여중에서 실시하고 있는 김장 담그기. 매년 배추 300포기의 김장을 해 수서지역 독거노인들에게 전달하는 체험 프로그램이다. 김장 담그기에 참여한 학생들과 선생님, 그리고 학부모들은 대화를 통해 서로간의 이해의 폭을 넓히고 있다. 학교 교칙을 위반하거나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학생들도 김장을 전달하기 위해 독거노인의 가정을 방문.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통해 이웃의 어려움을 돌아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정보통신의 발달과 함께 사회가 급변하고 있다. 특히 '신지식인'이라고 용어가 유행할 정도로 우리사회는 시대에 걸맞은 인재를 필요로 한다. 진선여중·고는 신지식인 양성을 위해 독서교육, 정보교육, 생활영어 교육의 충실로 국제경쟁력 제고, 특활 및 특기적성 교육의 내실화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로 유명하다. 그 가운데 월·화·금 특별활동시간을 활용하여 진행되는 특기적성교육은 연화학생회, 걸스카우트, 연극반, 방송부, 문예부 등

77년 강남 8학군서 개교 명문대학 진학률 높아

40여 개의 동아리활동을 중심으로 학생들의 정서적 소양을 길러주고 있어 다른 학교의 모범이 되고 있다. 또 매년 연화재를 개최해 동아리 활동으로 1년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뽐내며 진선만의 독특한 문화를 만들고 있다. 한국중등교육에서 특별한 활동이란 교과학습에 가려져 그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 그러나 진선에서는 나름대로 특성화된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숨은 심성과 소질을 개발하고 있다.

진선여중·고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사회교육에도 관심이 많다. 여기에서는 아버지의 학교방문을 권장하고 '학부모 참관의 날'을 지정해 수업을 공개하고 있으며, 여중에서는 어머니 합창교실, 배구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어머니 합창

매년 독거노인에 김치 전달 학부모 초청 수업모습 공개

교실 수업을 들은 학부모들은 합창단을 조직해 매주 수요일 오후 연습에 매진하고 있다. 매년 한차례 교직원, 학생들과 함께 발표회를 개최해 서로간의 신뢰를 쌓고 있고 졸업한 학생의 학부모들도 명예 단원으로 활동하는 등 학교의 이미지도 높이고 있다.

인문계 학교의 경우 대학 진학률이 그 학교를 평가하는 기준중의 하나. 진선여중은 매년 평균 15명이 서울대에 진학하고 있다. 반에서 1, 2등만 하면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에 들어간다는 결론이다. 또 지난해 졸업생 398명 가운데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 등 서울 시내 명문대학에 진학한 학생이 무려 250여 명에 이르고 있어 명문사립의 위용을 떨치고 있다.

김두식 기자 doob@buddhania.com

“아버이 마음으로 학생지도”



진선여고 이종원 교장

진선여중 한기수 교장



이종원 진선여고 교장(사진 위)

은 평소 학생들에게 서로 포용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심어주는 것이 이 학교 교육의 시작이라는 소신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최근 사회전반에 뿌리내린 도덕적 해이와 물질주의의 폐해로 인해 학생교육에 있어 지식전달 못지않게 인간성 회복교육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이는 자리아타의 대한불교진각종의 정신과 일맥 상통한다. 그는 또 학생과 교사 등 학교 제 주체들 간의 믿음과 화합을 강조한다. 서로간의 신뢰는 학교교육의 질을 높이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드는 원천이기 때문이다.

1977년 진선여중·고 개교와 함께 24년간 진선을 지켜온 한기수 진선여중 교장(사진 아래)은 막 피어난 꽃과 아기웃음, 그리고 부모의 사랑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꽃은 금방 시들고 아기는 자라면서 인성이 변해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부모의 사랑만이 영원하다고 믿는다. 그래서 그는 항상 부모의 마음으로 학생을 대한다.

한 교장은 개교 25주년을 기념해 졸업생을 대상으로 '홈커밍데이'를 실시하는 것이 꿈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미래의 밝은 비전을 제시해주고 싶어서다.

민족 자주정신의 상징



회당 기념관 진선여중·고 운동장 옆에 회당기념관이 있다.

2500석 규모의 극장식 회관으로 1979년 3월 착공해 80년 5월 완성한 회당기념관은 진각종 조종인 회당 손규상 대종사의 교육정신을 기리기 위해 세워졌다.

일제의 한일 합방과 해방 이후 안정되지 못했던 역사적 굴곡들은 모두 자주정신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 회당 대종사는 불교사상을 통해 자주정신을 회복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래서 사회안정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국민의 자주성을 회복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심성을 정화해 깨달음을 성취하게 하는 교화와 교육활동에 매진했었다. 회당기념관은 바로 이 같은 회당 대종사의 정신이 살아 숨쉬는 곳이다.



◇초등학생들과 학부모들이 '한문예절서당'에서 절을 하고 있다.

“절은 몸짓보다 마음으로”

한문예절서당 열린 법안정사 대법당

“하나, 둘, 셋, 넷...”. 16일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주최 '한문예절서당'이 열린 목동 법안정사 대법당. 선진규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장의 '절하는 마음가짐과 요령'에 대한 설명이 끝나자 이번 행사에 참가한 초등학생 1백명을 비롯해 학부모 등 2백여명이 일제히 구령에 맞춰 절을 따라 한다.

“어린이 여러분. 웃어른께 올리는 절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리나라는 정성이 반드시 깃들여져 있어야 합니다.” 선 회장의 예절교육에 이어 이번 예절서당에서는 충남 논산의 한 학마을에서 초청된 훈장선생님들의 '예절소학' 강의도 이어졌다.

김주일 기자 jim@buddhania.com



이선옥의

선무 건강법 ⑦

• 걷는선 •

1. 주변을 정돈하고, 조용한 음악을 틀고 자리에 선다.
2. 손을 단전에 대고 '이' 하고 소리를 내면서 한발 한발 단전에 집중해 걷는다.
3. 발뒤꿈치부터 땅바닥에 디며서 천천히 발끝이 땅바닥에 닿으면 반대편 발을 내딛는다.



소리들은 근본 당처

관하며 천천히 걸어

4. 이때 기가 단전에서 발뒤꿈치로 다시 발가락 끝으로 가는 과정에 집중한다.
5. 발로 땅바닥의 기운을 느끼고, 음악소리를 귀로 들으면서 소리를 듣고 있는 이 주인공이 무엇인지를 관한다.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그 당 처인 주인공을 '이뒹고' 하면서 관한다.
6. 생각이전의 자리, 알음알이 이전의 자리를 관하며 계속



천천히 걷는다. 이렇게 걷는 자체가 선(禪)이 된다.

“더불어 사는 법 가르쳐”

정교실에서

무의·법경·최선혜·김종훈·박미정

다한불교진각종에서는 참회에 의해 밝혀지는 마음을 심어주고 이를 가르치는 학문을 심학이라 부른다. 진선여중·고 정교실에는 정교실장 무의 정사를 비롯해 심학을 가르치는 법경 정교, 최선혜 여고 심학교사와 김종훈, 박미정 여중 심학교사들이 근무하고 있다.

정교실장 무의 정사는 교화행정의 책임자로 진각종 7대절 법회는 물론 교직원법회 등 주관하면서 진각종 통리원에서 문화사회부를 맡고 있다. 법경 정교는 정교실장을 도와 교내 교화활동을 도맡아 기획·진행하고 있고 교사들은 심학 수업시간을 통해 불교를 알리며 학생들의 학교생활을 돕는 안내자역할을



◇무의 정사 ◇법경 정교 ◇최선혜 ◇김종훈 ◇박미정 한다.

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자신과 관련된 것이 아닌 세상과 관련된 것이려면 심학은 자신을 알고 밝히는 것. 그래서 심학교사들은 심성순화를 위해 학생들에게 칭찬노트 릴레이와 같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고 E-종교에 대한 이해와 화합을 가르치고 있다. 즉 더불어 사는 법을 가르치고 있는 셈이다

매월초 정교실에서는 정례회의가 열린다. 한 달간의 행사를 기획하고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또한 위덕대, 심인중·고 정교실과의 교류를 통해 서로 자료를 공유하고 학생들에게 불교를 더 쉽고 재미있게 가르치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는다.

불교를 가장 쉽게 만나는 길

한눈에 불교가 보인다
부다피아 www.buddhania.com

세계로 열린 불교정보의 산실, 현대인을 위한 디지털 법당.
도서관에서 책을 펼치듯 인터넷에서 가벼운 클릭으로 정보여행을 떠나자!
아름답고 넉넉한 부처님 세상이 있는 곳으로...

맛 최고, 멋 최고, 기분 최고 쇼핑을 즐기는 곳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슈퍼마켓? 유명백화점? 거기에는 없습니다.
불교용품은 한곳에서 만날 수 있는 불교쇼핑 전시장!
주문도 배달도 안방에서... 문화쇼핑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불교뉴스 오늘 읽고 본다
일간 붓다뉴스 www.buddhanews.com

불교를 만나는 일주문 붓다뉴스를 클릭하는 순간!
따끈 따끈한 불교뉴스에서 신행정보, 생활상담까지
불교의 모든 것을 그날 그날 접하게 됩니다.

클릭 한번으로 책주문이 가능합니다
여시아문 닷컴 www.yosiamun.com

2만여 불교서적이 검색 클릭 한번으로 똑딱!
국내 최대의 불교전문 서점 여시아문이 주문에서배달까지 최고의 서비스를 책임집니다. 전화주문도 가능합니다. 02) 737-0695